



마스크 안쓰고 야간파티... 시한폭탄 된 '게하'

<게스트하우스>

주말사이 게스트하우스발 코로나 확진자 5명으로 늘어도, 게스트하우스 대상 3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주말사이 해당 게스트하우스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으로 늘면서 방역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기준 총 5명으로 집계됐다. 게스트하우스의 최초 코로나19 확

진자는 해당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36번 확진자 A씨다. 지난 24일 수도권을 다녀온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5-26일 자신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직원 및 투숙객과 식사를 하는 등 야간 파티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 37번 확진자는 A씨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근무하는 직원 B씨다. B씨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근무하면서 25-26일 A씨와 밀접 접

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손님들과 함께 야간 파티에 참여했다.

제주 38번 확진자 역시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이력이 있는 C씨다. C씨는 28일 서귀포의료원에서 검사를 받고 30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게스트하우스의 방문 이력이 있는 D씨(강동구 138번)는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3-27일 제주를 여행한 뒤 인천으로 돌아간 D씨는 28일 서울시 강동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D씨는 제주 체류 중 25일 숙박차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고 저녁파티에도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D

씨는 루프탑정원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문 뒤, 26-27일 제주시 애월읍 소재 '바람이 머물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게스트하우스 직원 E씨가 D씨와의 밀접 접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돼 제주 41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E씨는 D씨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는 동안 밀접 접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도내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감염 예방을 위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의 방역 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확진자 다녀간 제주시청 대학로 일대 가보니... 일상 파괴든 공포, 젊음의 거리도 '한산'

코로나 상황서도 '인산인해' 이루던 대학로 상가도 긴장

“일주일에 3-4일은 제주시청 인근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는데, 코로나19가 제 일상에도 파고들었다고 느껴져서 당분간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제하기로 했어요.”

대학생 변모(25·제주시 아라동)씨는 제주시청 대학로 인근 술집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식에 덜컥 겁이 났다고 했다. 변씨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 ‘난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자주 다니는 곳에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하니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내일이라도 제가 뉴스에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말했다.



지난 28일 밤 제주시청 대학로 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젊음의 거리”라 불리며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밤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시청 인근 대학로 일대는 인근에 확진자가 방문했다고 알려지자,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평소라면 모임이나 쇼핑 목적의 인파가 북적이던 곳이지만 이날은 골목마다 사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5인 이상 모여서 다니는 이들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종종 지나가는 이들도 대부분 떨어져 걷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 술집이 모여있는 골목엔 2-3명의 사람들이 드문드문 걸어들었다.

진자가 방문한 '정대'와 '구피곳'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골목을 지나던 A씨는 “아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걸 알게 돼 시청을 방문하기 불안했다. 필요한 물건을 사러 잠시 나왔다가 귀가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함께 걷던 B씨는 “제주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증가하니까 시민들이 긴장해서인지 아무래도 대학로를 덜 찾는 것 같다”며 서둘러 골목을 빠져나갔다.

주변 상권에선 긴장감과 불안감이 팽배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C씨는 “확진자가 다녀간 걸 알고 걱정이 크다. 8시 이후가 우리 가게 피크타임인데, 협조는 해야겠지만 자영업자라 당장 매출이 걱정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옷가게를 운영하는 D씨는 “불특정 다수가 방문하는데 오는 손님을 막을 수도 없고, 내일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가게를 방문하면 당장 며칠 장사를 못하는 거 아니냐”며 “(방역 조치를) 강하게 해서라도 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한다”고 걱정했다.



30일 현재 제주 게스트하우스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다. 사진은 일시적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게스트하우스의 모습.

확진 부부 온천 방문 숨겼다가 '발각'

GPS 추적 조사서 들통 방역당국 고발조치 예정

제주 29·33번 코로나19 확진자 부부의 동선이 공개된 가운데 이들 부부가 확진판정 이전 서귀포시의 한 온천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3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29번 확진자 A씨, 33번 확진자 B씨와 관련 GPS추적을 통해 지난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지난 28일 추가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2일 자택에서 머물렀고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뒤 귀가했다.

B씨는 23일 오후 2시 4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남편인 제주 29번 확진자와 함께 산방산탄산온천에 머무른 후 오후 6시 20분부터 오후 6시 46분까지 혼자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소재 대정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한 후 귀가했다.

도 보건당국은 이들 부부가 산방산탄산온천을 방문한 지난 23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온천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도민과 관광객에 대해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온천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 등은 반드시 외출을 자제하고 관할 보건소에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특히 도 방역당국은 산방산탄산온천 방문객의 70%가 타 지역인입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 방역당국은 “A씨와 B씨의 카드 사용내역과 현장 확인, 각 건물에 부착된 CCTV 영상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파악하느라 동선 공개가 늦었다”며 “지인들의 추가 진술, GPS 추적 등의 역학조사 끝에 3명의 접촉자와 추가 동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는 동선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하는 방식으로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집합금지명령 위반 등 게스트하우스 6곳 적발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 투숙중 야간파티에 참석했던 이들이 잇달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뤄진 특별점검에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6곳이 적발됐다.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은 29일 오후 6시부터 30일 오전 1시까지 불법파티 의심업소 34곳에 대한 현장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집합금지명령 위반 1곳 ▷미신고 숙박업 행위 1곳 ▷출입자 명부 미비치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4곳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이 가운데 집합금지명령 위반 1곳은 관련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할 예정이고, 출입자명부 미비치 등 나머지 4곳에는 현장 계도장 발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학교 방역비용 확대... 1학기보다 9억 늘어

제주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학교 방역비용도 대폭 확대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자체예산 26억원을 들여 총 970명의 방역인력을 2학기 학교 현장에 투입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는 1학기 투입된 예산 17억원보다 9억원 늘어난 것이다.

이번 투입은 지난 7월 도교육청에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

사한 뒤 결정된 것으로, 970명 가운데 219명이 단기체류, 751명은 자원봉사로 이뤄졌다.

이들 인력은 2학기가 시작되면 ▷등학교 방역체력 ▷방역용품관리 ▷일상소독 ▷보건실 운영 지원 ▷학생간 거리유지 및 마스크 착용 지도 ▷배식 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

대한민국 광복 75주년을 경축합니다.

애국선열들의 거룩한 희생으로 되찾은 자유와 평화의 큰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광복 75주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농협회사법인주식회사
오설록농장 | ☎794-6491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와음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회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제주시청 CGV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一(일) 祚(조)

누수방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매관 복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불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